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대책 강화

정부, 원청의 책임 확대·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제도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하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 발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에 따라 우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원청이 산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는 비계조립,해체작업 등 22개 장소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를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한다.

처벌수준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

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에는 공공 발주공사 입찰 시 주는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안전관리 실적을 가점으로만 반영했던 것에 더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발주자에게도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하고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작업중지 해제도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이달의 농협인상 수상

전주김제완주축협 이덕현 상무

전주김제완주축협 이덕현 상무가 이달의 농협인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농협인상은 범농협 차원에서 묵묵히 조직에 헌신하는 숨겨진 일꾼들을 선발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무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위원활동 및 전주시 새마을회 봉사활동, 현열,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그 업적을 인정받고 높은점수를 받아 이달의 농협인상 수상자로 선정됐

다.

또한 헌신적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서며 최근 3년동안 활동횟수 237회, 활동시간 1,093시간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덕현 상무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소외계층 및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 관심 증폭

이달 분양 앞뒤... 지구 내 우수입지로 평가

산업단지나 대형 산업체 인근에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이 뛰어난 아파트들은 분양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직주근접형 아파트 단지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만큼 근로자들의 배후주거지 역할을 담당해 생활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단지와 인접한 직주근접 아파트들은 청약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주 효천지구에서 분양된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은 821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6,620명이 몰리며 20.24대 1이라는 우수한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주 효천지구는 전주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분 물량이 오는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

면적 84㎡ 단일주택형 1,128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 상업용지가 예정돼 있어 지구 내 우수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

단지가 조성되는 전주 효천지구는 전주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지구와 인접해 있는 만큼 입지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다.

총 4,400여 세대로 조성될 예정인 효천지구는 효자동, 삼천동 등 기존 도심과 인접해 편리한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삼천 및 삼천산과 인접해 쾌적성을 겸비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이 효천지구에서 지난 3월 분양된 1차분 1,120가구와 오늘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2차분 1,128가구를 포함, 총 2,248가구의 우미린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도 1호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IC와 인접한 풍부한 교통인프라와 홈플러스, CGV 멀티플렉스, 농수산물 유통시장, 완산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 상산고를 포함해 초교 6개, 중교 4개, 고교 2개 등 총 12개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여건도 주목할 만하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전주 효천지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2차분 물량이 오는 8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구 우미린 2차는 지난 3월 분양된 1차분과 함께 효천지구의 랜드마크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구성에 그 뛰어난 입지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공정위, 대기업 집중 감시 '기업집단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또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

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규제시책 업무인원 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업집단국의 구성은 기업집단정책과를 비롯해 지주회사과, 공시집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국장을 포함해 총 50여명의 규모로 추려진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공정위 운영지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 초청 현장 학습 실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8월중 세차례에 걸쳐 도내 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해 경제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지난 8일 익산 동산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진안 마이동 지역아동센터, 18일에는 완주 봉동·소양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등 경제교육,

전북본부 영업장 및 시설 견학, '화폐 속의 패션' 전시관 관람, 전주 한지박물관 관람 및 체험학습, 전문문화체험(초코파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도내 아동·학생들의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청 현장학습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